

깨어 있으라.

말씀 : 마가복음 13:1-37

요절 : 마가복음 13: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警告)와 권면(勸勉)입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의욕적인 삶’과 ‘단란한 가정’ ‘남녀의 사랑’ 순위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이 우주의 종말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도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와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만민 구속 역사에 힘써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I. 말세의 징조(1-23)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 이까?**”(1) ‘와! 선생님 저 엄청난 돌들을 보세요. 저 웅장한 건물들을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정권을 잡은 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지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역사는 헤롯 18년(BC19)에 착공하여 46년 만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AD 63년에 완성한 82년에 결친 대역사였습니다.

성전은 히브리 문화의 총화(總和)라 할 만큼 최고의 건축술과 예술성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웅장한 외모와 황금으로 덮인 돔 형식의 지붕은 아침 태양이 비칠 때는 눈부실 만큼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여행자들은 이 성전 하나만 봐도 여행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려한 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에서 초가집만 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거대한 성전을 본 제자들 눈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예언(豫言)을 하셨습니까? “**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2)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 통찰력으로 예루살렘

이 그 죄로 인해 철저하게 심판 받을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 건축술과 아름다운 예술성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성전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 이면에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퀘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다 보셨습니다. 이 예언은 후에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현재 그곳엔 회교사원이 건립되었고 ‘통곡의 벽’(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 통곡을 했기 때문에-곁으로 드러난 규모는 길이 50m, 높이 18m 가량 됨)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일부가 남아 그때의 비극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역사 창조의 주인공들로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이 현혹되어 내면세계를 퀘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3,4)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이 마주보이는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큰 충격을 받고 비로소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성전과 예루살렘과 인류의 장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말세의 때와 그 징조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중심된 흐름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5,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5,6)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은 첫 번째의 말세 징조이며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희망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행5:36,37). 초대 교회에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亂舞 주로 옳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 마구 퍼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애천교, 몽문교, 여호와의 증인, 노스트라다무스, 우주인의 선지자를 비롯하여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박옥수의 구원파, 신사도주의 등은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세계 종교를 주장하는 새 시대 운동(New Age Movement),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가 40명이 넘고 자칭 하나님도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이단들이 순수한 양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거짓 진

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물질과 육신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메시아사상에 미혹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둘째, 재난의 연속입니다(7,8).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7,8) 말세에는 난리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은 무서운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종말의 때에는 사랑이 식으며 인간성이 상실되어 이로 인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무수히 벌어집니다. 인류역사 속에 이뤄진 수많은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임 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불과 270여년뿐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오늘날까지 전 세계 20여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고통당하여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해가 갈수록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氣象異變)으로 인한 재난도 심각합니다. 산업화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가량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의 높이가 10~20cm나 상승하였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만년설(萬年雪)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관측을 한 이래로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열병(溫熱病)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마비되고 방향을 잃어 실족하게 됩니다. 이 재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재난이란 "The beginning of birth pain" '산고(產苦)의 시작' '산모의 진통'을 의미합니다. 산모의 진통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해산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진통이 심하고 주기가 빨라집니다. 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또 새 생명이 출산하면 모든 고통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난리, 지진, 기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등은 모두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전주곡(前奏曲)입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인류역사를 끊임없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하며 반복되는 역사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역사를 산모의 진통처럼 분명한 방향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의 역사로 보셨습니다.

셋째, 펫박이 많아집니다(9~1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9~12) 사도행전에 보

면 제자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 세바스티안 지하 무덤(카타콤베)이 있습니다. 이 지하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17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아 땅굴 속에서 숨어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더욱 펑박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펑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펑박은 가정의 펑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미운 오리새끼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바보 명청이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펑박을 받을 때 우리는 타협하고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3)**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산상수훈(山上垂訓)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펑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14).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신성모독을 말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우상을 가리키고 서지 못할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성전)을 말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에 관련된 표현은 다니엘 11:31에 나오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후일에 성소를 더럽힐 안티오크스의 일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는 성소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이 성소에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군기를 세워 성전을 다시 모독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거룩한 제단 위에는 돼지 머리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 로마가 100만 명이 안 된 것을 볼 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재물에 미련을 둔 사람 육신의 정욕 대로 산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역사적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이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된 것과 같이 장차 있을 말세에 대한 모든 예언도 그대로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은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셔야 하는 자리를 우상이 점령하고 하나님처럼 군림합니다. 맘몬(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II. 기독교 역사관(10)

말세의 징조가 가득 찬 역사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희망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10)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비로소 세상 끝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인류 역사의 줄기가 복음 전파를 통한 인류 구속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복음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세계 각처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세계 233개국에 전파될 때 비로소 세상 종말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세상은 곁으로 볼 때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중에서 복음 전파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며 이것을 중심으로 인류역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만국 복음 전파는 역사의 흐름이며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며 무슨 의미를 지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여기서 '먼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많은 가치들 중에서 이 복음 전파를 가장 중요시하시며 이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즉시 복음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만국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역사상 이 생명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류역사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야 비로소 종말이 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분명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제시하며 복음 전파를 통한 생명 구원 역사를 인류의 흐름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먼저(must first)'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복음 전파는 우리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남북 통일도 해야 하고,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고 학위도 따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보다 복음 전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권세 아래 탄식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속히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선교는 우리만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말세(末世)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만국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하나님에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 줍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으로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을 귀히 여기고 깊이 연구한 사람이나 민족치고 축복받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공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공부하면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정신이 올바르게 되고 근면하게 되고 검소하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스피릿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적이 되어 자연히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국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였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학생복음운동(IVF)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되었고 거리나 공원 이름도 거의 성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인류에 영향을 끼친 100명 중 40명이 영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익스피어, 뉴튼, 토인비 등을 비롯하여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암 케리,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 리빙스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헤드슨 테일러, 학생 운동가 찰스 스터드를 비롯한 캠브리지 세븐 등 수없이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여 18~20세기 초까지 세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였을 때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 Great Britain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공부를 게을리하고 복음신앙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해가 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경공부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때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공부를 하지 않을 때 자연히 육신의 소욕과 감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공부야말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는 성공의 길일뿐만 아니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유능한 성경선생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국 복음 전파에 귀히 쓰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타이틀도 없이 세상에서 무시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사 창조의 주역들입니다. 이념이 사라진 오늘날은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복음 전파보다도 자기 공부, 취직, 자동차, 좋은 생활 조건을 더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개인주의로 빠질 때 역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복음 전파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만의 구호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역사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I.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24-37)

예수님께서 각종 환난 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더 무서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24,25) 마지막 날에는 우주질서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환난 후에 임할 영광스러운 인자의 재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26) “At that time men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말구유간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의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장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립니다. “Jesus is coming” 이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가슴에는 황금빛 금띠를 띠시고 가시 면류관 대신 금 면류관을 쓰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영광의 주, 심판의 주, 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범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일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심판의 기준이 지식이나 돈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시며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당한 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낙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참된 소망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풍파와 고난도 견디게 합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썩어 없어질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에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재림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재림의 희망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28)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29-31)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1) 예수님의 재림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니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32)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볼 때 모두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과 때를 가르쳐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날과 때를 몰라야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과 때를 모르게 하심으로 참된 신자들을 가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33-37절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34). '깨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에 빠지지 말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위기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28:19)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조대 전대와 전 세계 캠퍼스 영혼을 일대일로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로 양성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대일 성경선생의 사명이요 목자의 직분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35)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 사명을 깨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훌연히 와서 우리가 안일의 잠, 불신의 잠, 정욕의 잠을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깨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눅19:17)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지말(末世之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끊임없는 재난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유혹도 많고 펑박도 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만국 복음 전파에 충성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